

헬로십교회

우리 하나되어

세례식 특집

우리는 차세대를 이끌 크리스천 외

-목요기도회

-스데반 사역

-오이코스 목자 수양회



Class of '08



유치부 졸업식-MD (8월 31일)



유치부 졸업식-VA(8월 24일)



여름 성경학교
8월4일-8일





예수를 아는 기쁨

글 - 나은숙

2002년 7월 25일 미국 이민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델러스 공항에 도착한 후, 그 해 8월에 헬로쉽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의 권유로, 그 권유에 보답하려는 차원에서 들렀던 것인데, 그 첫 예배에서부터 성령님께 강하게 붙들리어 얼마나 충만한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교회에 바로 그 날로 교인이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아보고 새신자로 영접을 한 것도 아닌데, 제 스스로 '새교우 환영식'에도 가고, '한우리반'에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예배에서 받는 은혜와 축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시작하는 한 동안만 그러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그저 그런 예배를 드린 경우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6년 동안 다섯 번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번 은혜를 주시는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길, 어떤 사람에게 8번 예배의 감동이 있으면 조금씩 변한다고 한 말이 생각합니다. 매번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으며, 가슴 깊이 차오르는 충만한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혹시 교회의 누군가가 보면 요즘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늘 은혜에 감사해서, 또 기뻐서, 또 때로는 깨우쳐 주셔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혼신의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1주일을 살곤 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에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너무도 과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것 가지고 그러느냐. 그거는 아무 것도 아니다. 내가 네게 줄 축복이 아직도 많다” 하십니다. 예전에는 그저 말에 지나지 않았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네가 고민하는 또는 때로는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신기하게도 그날 주재도 아닌데 뜬금없이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통하여, 어느 때는 음성으로 그 답을 주시며 저를 위로하시고 길을 안내 주십니다.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답을 주시는지 그런 일들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회개를 할 때면 저의 경우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자상하고 옅은 미소로 저를 바라보십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미소를. 미소는 미소인데 파안대소하는 미소가 아니라 저를 너무도 붙잡고 여기시는 미소라서 제 가슴이 더 미어진다고나 할까요. 제가 자식을 키워 봐도, 자식도

미울 때가 있는데 언제나 저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은 그 분 한 분 밖에는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든든한 뺨이시니 땡깡도 부립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가족이 다 함께 이민을 오긴 했지만, 남편은 한국에서 하던 일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아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재입국허가 비자를 받고 오고 가고 하다가, 완전히 이곳으로 오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제게는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고, 정말 예배의 힘으로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에 윤형주 장로가 특별 간증의 밤을 가졌는데, 바로 그 즈음에 알 수 없이 아랫배가 아파서 거동을 잘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날 주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과 그 구원에 대한 것이었고, 그 말씀들이 그렇게도 제 가슴에 절절히 박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계곡 옆에서나 느껴볼 수 있는 시원한 것이 제 몸을 지나가는 것을 느꼈고, 마치 너무 노곤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꼼짝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날 돌아가면서부터 신기하게 통증이 없어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힘든 길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의무적으로 훈련반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 한계가 왔습니다. 은사발견반도 하고, 제자훈련 1까지는 잘 했는데, 2번에 갔을 때는 너무 힘들고 지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중지했고, 그 뒤로 계속되는 은혜와 축복 속에 조금씩 조금씩 저를 변화하게 하시고, 제가 지식이나 실력이 너무 없는 크리스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증이 생겼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말씀이 그렇게 재미있고 살아 숨 쉬는 것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맥체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을부터 교육에 대한 열망을 주셔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올 봄에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제는 1년 단위로 바뀌었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자훈련 첫 모임 날 저녁에 성경을 읽고 QT를 하는데 이유도 없이 끝도 모를 기쁨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쁜 하루 일과 중에 성경 읽기도 힘들었는데, QT하고 일지까지 적고나면 2시간이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해가 비치면

그것이 감사하고, 일하면서도 무엇이 그리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모든 것이 다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 이 기쁨을 나누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주변의 믿지 않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기쁨을 모르는 게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돌아가면서 이름을 적어가며 기도했고, 가는 곳마다 말이 통해지면 제 기쁨을 나누곤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도 더 많이 일하고 사는 걱정도 많은데,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지수가 높으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들은 알았을까요? 저는 그 비밀의 열쇠를 모른 채 그저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그들이 너무도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와서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에 관련하여, 사실 저는 전에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이니 세례니 하며 우르르 물려다닌 기억은 나는데 학습은 받은 것 같은데, 세례 장면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감리교여서 한 명씩 침례로 주지 않아서 그런지. 어찌하든 장승민 목사님께 상의 드렸더니, 세례는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고 진정한 세례는 단 한 번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여, 헌신의 의미로 세례를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교회에서 담임목사님께 침례로 세례를 받게 되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제가 꼭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왔던 것처럼 제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세례 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헬로쉽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환상과 일치하는 현실

글 - David Kwon (12학년)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들의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만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난 멕시코의 한 중심지역으로 갔던 여행을 통해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올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어느 하루, 여섯 명의 티모티 학생들이 휴스턴, 텍사스로 떠나기 위해 덜러스 공항에 모였었다. 남부 수도에 도착한 우리는 YWAM Tyler의 베이스캠프로 이동했다. 거기서 우리는 수십 명의 스태프를 소개 받았는데, 모두가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의 일꾼들이었다. 다른 청년들도 계속해서 하나 둘씩 도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에는 모든 선교단 멤버들이 세미나와 예배를 드리는 다목적 방에 모이게 되었다.

그 후로부터 첫 일주일 반 정도는 땀땀한 성경공부와, 뜨거운 찬양이 있었고, 무엇보다 소중했던 하나님과, 그곳에 참여한 스태프들 그리고 학생들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졌다. 주어진 설교 말씀은 정말 은혜로웠고 그 내용이 내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의 부족함, 그리고 자존심과 이기심에 관련된 말씀이었다. 목사님께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한 것도 아니었는데 모든 말씀이 신기하게도 내 삶에 꼭 맞는 말씀이었고, 또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이 되었다.

설교말씀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뜨려지고 낮아져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선택된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왕이신 그 분 앞에 언제나 겸손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설교말씀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를 완전히 정제하게 해 주었고, 하나님의 성품과 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 또한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해 주셨다. 우리는 신실하신 예수님을 존중하도록 배웠다. 내 자신이 근본적으로 교만



There are experiences in everyone's life that just absolutely revolutionize one's lifestyle. I can confidently say that my journey into the heartland of Mexico has placed the Lord as the supreme priority in my life; I cannot describe how intimate my spiritual walk with the King has become because of my sacrifice to serve Him in the Latino world.

One day, six Timothy students gathered at Dulles airport to prepare to leave for Houston, Texas. Once arriving in the southern capital, we were commuted to Tyler, the base camp for YWAM Tyler. From there we were introduced to tens of staff members, generally consisting of devoted missionaries and servants of the church. The other youth slowly but steadily arrived, and by the next day, the whole missions roster was present in the "multi-purpose room" (the room where we had seminars and worship time).

The first week and a half from that moment would be jam-packed with intense bible study, overwhelming worship, and precious bonding moments with the Lord, staff, and the student body. The sermons given were incredible, pertaining to every aspect and flaw of my own life as well as others such as pride and selfishness. These sins were targeted by the speakers, even though I did not ask the pastors to speak on a specific topic, all of the messages miraculously fit perfectly into my life, answering every question that had been on my mind.

One of the sermons spoke about our brokenness in the Lord, how we need to be broken and humble

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더욱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내 자신을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날 다시 고쳐주셨으며, 그 분 앞에 겸손하고 용기 있는 일꾼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

일주일 동안의 설교 단계를 마친 후 우리는 이번 단기 선교 프로그램의 가장 주요한 위치인 멕시코의 레이노사라는 지역으로 안내되었다. 우리 캠퍼스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잠은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야했고, 화장실은 남·녀 합해서 두 개에다, 샤워는 정말 줄 줄 나오는 물로 해야 했고, 주식으로는 피넛버터와 젤리 샌드위치가 전부였다. 선교활동을 해야 하는 위치로 이동할 때에는 에어컨도 없어서 자동차 안의 온도가 거의 100도가 넘는 오래된, 거의 망가진, 벤 차를 타고 다녀야 했다. 캠프 주위에는 무서운 벌레들이 많았다. 플라스틱 백과 침낭도 뚫고 들어온다는 개미와 골프공만한 모기들, 그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전갈과 거미들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힘들었었다. 매일같이 95도가 넘는 폭폭 찢는 날씨와 캠프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물 때문에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찬양과 기도는 정말 뜨거웠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동안 영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힘든 싸움이었다.

우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으로부터 오는 힘과 인내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 자원봉사활동 자체는 너무 고된 일이었다. 청년부는 찬양, 연극, 무용, 광대, 그리고 여성 성경학교 이렇게 5개의 각기 다른 선교 부서로 나뉘어졌다. 난 연극을 맡게 되었는데 몇 시간에 걸쳐 연습을 하며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을 배우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힘썼다. 각자 맡은 부분을 완전히 익힌 다음, 모든 청년부 팀이 모여 각기 다른 팀으로 나뉘어졌다. 각 팀은 각기 다른 플라자(미국에서 말하자면 공원 같은 곳을 멕시코에서는 플라자라고 함)로 가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일하자 매 번 갈 때마다 그 은혜가 특별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기적들이 매일 같이 우리 모두에게 쏟아져 내렸다.

예를 들면, 하루는 선교 활동을 나가기 전, 우리가 그 날 전도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머리가 하얗고 얼굴에 주름이 있는 나이 많은 여자였는데, 그 이름이 로사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 팀이 가기로 되어있는 플라자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

before him, always remembering that it was our privilege to be the chosen generation that would serve and fulfill his kingdom come, and always staying modest and thankful before the King. Such seminars totally refined my own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emphasizing importance in recognizing the Lord's character and my imperfections. And that my own will would not satisfy my spirit, but rather the plans and miracles placed by the King. We all learned to respect Jesus for his faithfulness, even though that my sound basic, such respect and humility before our God is something very hard to achieve, especially for me because I in essence am such a prideful and proud being. I broke myself and the Lord remolded me, shaping and pushing me to be a humble and courageous servant before him.

After completing the week long lecture phase, we were escorted to Reynosa, Mexico, the primary location of our entire outreach program. Our campus wasn't exactly impressive: we slept on a solid concrete slab, had two bathrooms (one for each gender), the showers were more of a drizzle, and our main diet consisted of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es. We had to drive in old broken down vans to reach out ministry sites; with no air conditioning, it reached nearly a hundred degrees inside. The insects around camp were vicious, the ants being known to tear through plastic and sleeping bags, mosquitoes were as big as golf balls, and the scorpions/tarantulas roaming around didn't exactly give us a pleasant stay. The weather was scorching, almost 95+ degrees every single day, water was limited to the campsite, the worship and prayer was powerful, but it was a raging spiritual, physical, and mental battle the entire time.


Because of all of these obstacles, we admitted the only way we were going to survive was by relying on the support of the Holy Spirit, by feeding off of His strength and perseverance. The outreach itself was very arduous; the youth were broken up into five different ministry departments: worship, drama, dance, clowns, and VBS. Since I was a part of the drama, we practiced for hours, learning and perfecting our skits. Once we mastered our parts, all of the youth were gathered and split up into different teams, each team did ministry to a different plaza (what a park would be in America, a plaza is in Mexico) once in the morning and once in the evening. Each trip was special, examples and miracles of God rained down on all of us every single day as we obeyed the King.

For instance, one day before ministry time, we gathered and started praying for the people we were going to touch that day, asking the Lord to help us

드는 곳으로 알려진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곳에 있을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집 없는 아이들일 뿐, 어른은 거의 살지 않는 곳이다. 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혹시 이 ‘로사’라는 여자가 내가 혼자 마음속으로 상상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메시지인지 고민하였다.

선교 장소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는 순간 플라자 전체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이라고는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나이 많은 여자 하나뿐이었다. 난 그 여자가 내가 환상에서 본 사람과 모습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얼굴을 보았는데, 내가 환상에서 본 사람과 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난 너무나 놀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미련한 나는 아직도 떨리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서 연극과 발표가 모두 끝날 때까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지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오늘 만나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끝마칠 때 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험해 보기로 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생각이 참으로 어리석었지만 미쁘신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끝까지 용기를 주셨다.

사역을 끝마친 후, 그 여자 분이 아직도 있는지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같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가까이 가서 이름이 무엇인냐고 물었더니, “로잘리”라고 하면서 자기의 별명은 “로사”라는 것이다. 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깨닫고, 성령으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얘기를 해 보니 이 여자는 절실한 힌두교도였는데,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물론, 그 여자의 마음을 깨뜨려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그 순간부터, 로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 내 손을 잡아주셨고 조심스럽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얼마나 낮추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나는 참으로 새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졌으며,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가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YWAM을 통해 내 자신의 삶속에서 영적인 새로운 발견을 하게 해 주셨다. 매일 갖는 경건의 시간에서부터 친구들과 동료들을 섬기려는 나의 노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간섭하시게 되었다. 

<번역: 양하영>

glorify him. At that time the Lord gave me a vision of an old lady, with white hair and a wrinkly face, and He revealed to me that her name was Rosa, He commanded me to bring the good news to this woman. At first I was very skeptical because the plaza my team was going to that day was known to be a children's plaza, meaning that almost all of the people in that location were homeless children, with pretty much no adult residents. During the van ride I wondered if I had just imagined this “Rosa” through my own mind, or if it really was a divining message given to me by the Lord.

But when I stepped out of the van, the entire plaza was empty except for one old lady sitting on a bench. I wanted to see her face, to confirm that it was the woman in my vision, and surely enough, her physical characteristics fit perfectly with all of the details in the vision. I was so shocked; I had heard the voice of God! But foolishly I was still fearful and doubtful so I didn't talk to her until we were finished with our skit presentations and such. I was testing the Lord, to see if he really was faithful, I wanted to see if the lady would still be there after our ministry, to test if she really was the person I was destined to meet that day. I was childish to test God even after such encouraging signs were given to me, but the Lord is so faithful: he kept on encouraging me until the end.

After ministry, I looked around to see if the woman was still there, and sure enough, she was sitting right on the same spot, staring right at me. So I came to her and asked her what her name was, and she told me it was Rosalie, and that her nickname was Rosa. At that point I was just overwhelmed with the spirit, because I knew that I was ordained and appointed to meet and save this woman. I talked with her, and it turned out that she was a devoted Hindi, but while I prayed for her, the Lord broke her heart, as well as mine, and she agreed to accept Jesus into her life. From the very moment I received the vision to the point where Rosa accepted Christ, the Lord held my hand and guided me carefully along. He told me what to pray about, what to do, how to go about it, and how to humble myself to be used him by.

I can say that I am indeed a new person, I think differently, it is easy for me to love people, pray, and to reach out to people around me. The Lord used YWAM to create a spiritual breakthrough in my own home life. He is now involved in almost every aspect of my lifestyle, from everyday quiet times to my efforts to minister to my friends and peers. 

불평이 변하여 화평으로

글 - Esther Chung (10학년)

저는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1992년 5월 7일은 실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뜰이나 아프신 엄마가 저 때문에 더 아프시게 되었거든요. 저는 항상 이기적이어서 엄마속을 썩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많이 화내신 다음날은 꼭 앓아누우시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저는 계속 또 엄마속을 썩이고 대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안 계신 듯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자랐는데 갑자기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 그냥 절 미워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비뚤어지기로 결심해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그렇게 결정해버렸고 저는 하나님한테서 등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안 좋은 일들이 생겼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전화까지 오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탓하며 그 분을 미워했습니다.

하다못해 엄마는 저를 다시 올바른 길로 다시 돌려놓으려고 하셨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다가 보다가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때 날 잡든지 말든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갈 때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지낸 지 한참 후, 하나님한테 반항한다는 생각을 하며 지낸 지 한참 후,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깜깜했습니다. 불빛이 없는 듯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완전히 날 버리셨구나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깜깜한 곳에서 벗어나려고 뛰어다녔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전도단 (YWAM)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없다면 난 이제 모든 게 끝이다. 큰 기대는 안하고 갔습니다. 기대를 하다가 그게 무너지면 전 모든 게 산산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텍사스에서 1주일 교육을 받는 동안에 굉장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로 안 버리셨다고. 왜 자꾸 예수님한테서 한발 한발 멀어지려고 하느냐

고.


텍사스에 온지 3일째. 저는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러면서 또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울고 울고, 탓하고 탓하고. 그러다가 저 어둠속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저한테 다가오셨습니다. 손을 내미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갑자기 가슴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몰려오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는 웃음과 함께 제 가슴은 한껏 풀려오는 기분과 함께 캄캄하다고 생각했던 곳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불이 켜지면서 보니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옆에 항상 계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저는 계속 웃음만 나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 40분쯤 웃었을까. 저의 마음속 모든 것은 행복만 가득했고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나서 멕시코 레이노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것에 너무 행복해하는 아이들.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 많은걸 받았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많은 것을 받았구요. 그런데 저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더, 더. 하며 더 못 받으면 저는 그것에 대해 모든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목소리를 너무 뚜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할지 말씀해주셨습니다. YWAM에서의 선교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예수님이 멀리신 팔 품속에 뛰어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YWAM이 끝난 지금, 저는 모든 게 바뀐 것을 느낍니다. 옛날에는 그냥 빨리 하늘나라에 데려다달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기도였지만, 이제 기도할 때는 감사기도와 누구를 위한기도,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끌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자

글 - 전정림

지난 7월 21일, ‘헬로쉽 목요기도회’가 커버넌트 채플에서 열렸다. 최바울 선교사님 (인터콥 본부장, 소아시아 선교사, KUIS 대학원 학장)을 특별 초청 강사로 모시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헬로쉽 목요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메릴랜드 캠퍼스 커버넌트 채플에서 열리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한 달에 한번씩 (주로 매달 넷째 주 목요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선교 기도회로 드리고 있다

최바울 선교사님의 메시지는 ‘시대’라는 제목의 동영상으로 그 문을 열었다. 동영상은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 급증하는 테러의 위협, 그리고 인간 복제 연구의 증가 등,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자명한 증거들 앞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중국과 한국 교회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백 투 예루살렘(Back to Jerusalem:BTJ)’ 운동에 대해 소개했다.

이 천년 전, 예루살렘에서 열 두 제자를 통해 시작된 세계 복음화의 물결은 유럽과 아메리카를 돌아 서진을 계속하여, 이제 아시아를 휩쓸며 복음의 시작점인 예루살렘을 향해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 그 물결은 동진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과 만나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90% 이상이 자리 잡고 있는 중앙아시아와 소아시아, 그리고 중동지역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이례적인 영적 전투에 개어있는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장, 단기 선교와 중보기도, 그리고 물질적 후원으로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이 바로 ‘백 투 예루살렘(Back to Jerusalem:BTJ)’ 운동이다. 이 ‘백 투 예루살렘 (BTJ)’ 비전은 원래 중국교회 초창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여하신 것으로, 현재 중국의 지하교회들은 그 비전을 위해 이슬람권을 향한 100만 선교사를 외치며 담대히 나아가고 있다.

미전도 종족 선교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2차 로잔대회 때부터이다. 로잔대회는 15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세계 최대의 복음주의 지도자 대회로서, 1974년 스위스에서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티’ 등 세계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89년 로잔대회에서 세계 선교 지도자 ‘랄프 윈터’, ‘루이스 부시’가 발표한 세계 선교 현황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전 세계 2만 4천여종족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 1천여 종족이 교회가 없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시고 승천하신 후 2000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세계 복음화 비율이 그토록 더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즉 우리

의 사역에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24:14) 는 성경 말씀을 떠올렸다.

예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실 그 때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깨달아졌다. ‘하지만 나는 정말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가?’,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이 너무 익숙하고 편안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잠시 마음이 무거웠다.

다행히 세계 선교는 89년 이후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미전도 종족 선교와 10/40창 선교(복음화 비율이 가장 낮고 미전도 종족이 밀집되어 있는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위치한 지역을 위한 선교)가 활성화 되고, 한 교회가 하나의 미전도 종족을 영적으로 입양하자는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등이 일어나 빠른 복음화가 진행되어왔다. 또한 성직자 선교에서 전문인 선교 (비즈니스, 교육, IT, 의료 계통 등 특정 분야에 전문적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한 평신도들이 하는 선교)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면서, 성직자들이 비자를 받을 수 없었던 이슬람권과 불교, 힌두교권에서의 선교도 가능해졌다. 그 결과 현재 약 3000여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고, 그 중 인구 10만 이상의 종족은 600여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더욱 빠른 속도로 그 교세를 확장하고 있어,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이미 기독교인의 숫자를 훨씬 넘어섰으며, 특별히 반미감정이 높은 지역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로 눈을 돌려 이슬람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우리 한국을 2020년까지 이슬람화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슬람교 관련 TV 프로그램 방영, 노동자 입국을 통한 선교사 파송 및 한국 여성과의 결혼 장려, 한국 내 대규모 이슬람 사원 건립, 최고 수준의 이슬람 대학 설립 및 장학금과 연구비 지원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선교 사업에 돌입했다. 이는 사우디


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의 국가적 후원과 석유사업을 기반으로 한 막강한 재력을 힘입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적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입학한 한 중등 학생의 적극적인 이슬람 선교 활동을 통해, 말씀의 바탕이 약한 많은 학생들이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인터넷으로 접한 적인 있는 내게, 선교사님의 그러한 이야기들은 결코 예사로운 이야기가 아니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며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을 것이라 하신 일,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리우시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 사람들이 ‘모든 민족’의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일 등 이렇게 삼위 일체 하나님

께서 역사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모든 민족’을 강조하신 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오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관심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모든 민족’에게 있으셨다고 선교사님은 말씀하셨다.

생각해 보면 에덴에서의 인류의 타락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그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 즉 회

복된 교회가 영광과 권세로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 바로 그 때가 아닌가. 그러므로 모든 민족의 복음화는 하나님의 숙원사업이며, 어느 누구도 그분의 자녀라면 결코 무관심할 수 없는 일이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10/40 창 의 강력한 사단의 진지를 파악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교회의 지체들을 모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도록 부르고 계심을 믿는다.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쁨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열 처녀의 마음으로 고백해 본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20) 



최백울 선교사

초등부소식 (MD)

글 - 신율미

새학년도 교사 오리엔테이션

8월 24일에는 오전, 오후에 한 차례씩, 새학년도 교사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새학년도 오전반은 1학년과 5학년이 두반씩 모두 일곱 반이며, 정교사 7명과 보조 교사 7명이 1년 동안 헌신할 것을 서약했고, 오후반은 1학년이 두반으로 모두 여섯반이며 정교사 6명이 1년 동안 헌신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초등부에서는 오후반을 위한 보조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과 넘쳐나는 아이들을 위한 교실 확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름학기 주일 학교

7월과 8월에는 정교사들이 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름 학기 동안 교사로 사역하는 성도에 의해 초등부 주일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봉사해주시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지친 정교사들이 여름 동안 쉬면서 여러 방면으로 재충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한국에서 여름 방학 동안 미국을 방문해온 아이들의 수가 여러 명이 되어, 한국어 성경 공부반을 마련하여, 영어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5학년 졸업 여행

지난 7월 26일에 5학년 학생들 약 10명이 부모님과 인솔교사들과 함께 버지니아에 있는 킹스도미니언에 졸업여행차 다녀왔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떨어지지 않는 아쉬운 발길을 돌려 밤 늦게 돌아왔습니다.

제 4회 성경 암송 대회

7월 27일에는 제 4회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기본 성경 구절 10개와, 4,5학년에 한해서, 추가 성경 구절 10개를 암송했습니다. 다음은 성경 암송 대회 수상자 명단입니다.

1st Grade

- 1 - Jiyeon Choi (10), Rebecca Jung(10), Tiffany Jung(10), Eleanor Zang(10)
- 2 - Yubeen Hwang (10)
- 3 - Kihyun Lee (7)

2nd Grade

- 1 - Daniel Lee (5)
- 2 - Julianne Ghiorzi (3), Esther Kwon(3)
- 3 - Bryan Kim(3), Mia Lee (3)

3rd Grade

- 1 - Sarah Lee (9)
- 2 - Jiwoo Park (6)
- 3 - Nathaniel Kim(4), Grace Kim (4), Matthew Kim(4)

4th Grade

- 1 - Gabby Han (10)
- 2 - Anna Lee (9)
- 3 - Jaime Ghiorzi (8)

5th Grade

- 1 - Jonathan Kim (20)
- 2 - Michelle Cha (15)
- 3 - Hannah Lee (13)

(The number in parenthesis is number of verses memorized.)

여름 성경 학교

8월 4일부터 8일까지의 5일간에 걸쳐 어린이들의 신나는 여름 성경 학교가 펼쳐졌습니다. 약 70명의 어린이와 약 40명의 봉사자들에 의해 진행된 올해의 여름 성경 학교는 'Outrigger Island'라는 표제 아래, 바닷가와 섬풍경으로 장식된 교실과 홀에서 어린이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맛보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헬로쉽교회 여름성경학교의 특이할만한 점 중의 하나는 봉사자가 모두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얼마 나지 않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과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면서,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말씀을 배우고, 공작을 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는 더 없이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 봉사자, 학생 봉사자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해주신 부모님 봉사자, 또 어린이들의 간식을 준비해주신 부모님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학년 졸업식

8월 31일에는 5학년 어린이들의 졸업식이 어린이 예배시간 중에 있었습니다. 올해 초등부를 졸업한 어

린이는 모두 27명이며, 졸업식에서 어린이들은 졸업장과 성경책 한권씩을 졸업선물로 받았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

9월 14일, 헬로쉽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위해 10명의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헌금 위원으로 사역하고, 약 10명의 어린이가 찬양 인도 보컬리스트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게 될 예정입니다.



AWANA CLUB

오는 9월 10일부터 어른들을 위한 수요 성경 대학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AWANA CLUB'이 시작됩니다.

'AWANA'란 디모데후서 2:15 말씀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어린이들은 'AWANA CLUB'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며,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깊은 뿌리를 심게 됩니다. 또한 신나는 게임과 놀이를 통해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학년도 시작

초등부에서는 9월 7일부터 모든 학년이 한학년씩 올라가게 되며, 새로운 교사와 교실에서 새학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AM Sunday School			PM Sunday School		
Grade	Room	Name	Grade	Room	Name
1A	208	John Shin (Main)	1A	208	김정실
		Erin Kwon			
1B	207	Jewel Na (Main)	1B	207	이유경
		Susan Han			
2	209	Eugenia Chang (Main)	2	209	백영주
		Richard Mun			
3	206	Denese Forkkio (Main)	3	206	김종민
		James Forkkio			
4	205	Elisa Lee(Main)	4	205	신성출
		Justin Ha			
5A	213	Jonathan Lee (Main)	5	213	최윤실
		Helen Jo			
5B	Libry	Jane Nam (Main)			
		David Nam			



보이는 ‘나’ 와 내 안의 ‘나’

글 - Grace Kim (10학년)

나는 4학년 때 Pioneer Club을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오기 전까지 내 삶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었다. 주 중에는 학교에, 금요일에는 친구들과, 그리고 일요일에는 교회였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헬로쉽교회에 다니기 시작해 그 속에서 성장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나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내 생활 어디에서도 중요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모든 것이 복잡해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신앙생활에서 날 멀어지게 한 것은 우리 가족이었다. 아빠는 교회에서 존경받으시는 장로님이시고, 엄마는 교회의 모든 일에 봉사하시는 분이며, 오빠들은 누가 봐도 부모들이 바라는 ‘완벽한’ 아이들이다. 결론은 나 또한 ‘완벽한’ 아이가 됐어야 하는 것이다. 막내로 자라는 것도 힘든데, 이러한 교회에서의 평판은 나에게 부담이었고 짐이 되었다. 난 부담감에 눌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의욕마저도 없었다. 그냥 일요일에는 착한 크리스천처럼 행동하고, 주중에는 학교에 돌아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쉬웠다.

나에게 이런 부담감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에게 커다란 호위대가 있었다. 나를 보호하고 나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는 우리 오빠, 아빠, 사촌 오빠들, 그리고 교회의 선배 오빠들이 있었다. 나를 보살펴 주는 여자분들로는 우리 엄마, 사촌 언니들, 그리고 당연 교회

I decided to give my life for God when I was in fourth grade in pioneer club. However, before I TRULY came to the Lord, life was routine for me. Go to school during the week, Friday nights, and then church on Sundays. Ever since I was born I’ve been coming to NCFC and have grown up in it. Since I had grown up in this environment, hav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Lord was not first in my life, or in any place in my life. I didn’t understand it and it seemed so complicated to do. Because of that, I didn’t even bother trying to figure out what God really was about.

However, what really drove me away from the Christian lifestyle was my family. My dad was and is a well respected Elder in our church, my mom is a volunteer for almost everything at church, and my brothers were and are probably the most “perfect” kids a parent could ask for. So in conclusion of course I had to be another one of the “perfect” kids. Having a reputation like that in the church is so much pressure and too much of a burden for a person to carry, let alone the youngest child. With so much pressure on me, I didn’t have any motivation to even try and get to know God. It was easier for me just to act like the perfect Christian on Sundays and then go back to school during the week and do whatever I wanted.

Not only did I have pressure on me, I had a huge ring of “bodyguards”. I had my brothers, my dad, my cousins, and even impact guys protecting and watching everything I did. The women that looked after me so closely were my mom, my cousins, and of course more impact ladies. I had such a tight lock around me that I longed for freedom and just to breathe. To let out the frustration that was building inside of me, I would watch a LOT of T.V. and also just snap back at my parents whenever I could. Most of the time, I could just hold all inside of me and when retreat came rolling around, I would cry till I could barely open my eyes. It was unhealthy way to deal with what I was going through.

의 선배 언니들이었다. 내 주변의 이러한 뻘뻘한 자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고 숨 쉬고 싶었다. 속 안에 쌓여오는 불만을 해소하려고 난 텔레비전을 엄청 많이 보기도 하고, 가끔씩 부모님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속으로 담고 있다가 수양회가 다가오면 그 때에 눈을 뜰 수 없을 때까지 울곤 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좋은 것이 아니었다.

내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었던 지난 겨울, 나는 모든 스트레스가 나를 억눌러 미칠 듯이 마음이 복잡했었다. 수양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더욱 산란하게 된 것이었다. 수양회는 깜짝 놀랄 만큼 좋았지만, 내 자신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 이번 수양회 역시 내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끄집어내어 놓고 울 수 있는 장소에 불과했다. 같이 참석했던 다른 형제, 자매들도 속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을 유지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매번 수양회가 끝나면 그렇듯이 손을 올리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매 주마다 조금씩 줄어서 결국엔 아무도 없게 된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마음속의 열정을 간직하려는 사람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 또한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한 해가 지나면서 부모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세례를 받지 않겠느냐고 물어오셨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위선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난 매번 거절을 했다. 부모님은 아마 내가 왜 그러는지 의아해 하셨지만, 난 단지 나의 간증문이 교회 잡지에 실리는 것이 싫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 해 나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큰 오빠 크리스토퍼였다. 해군사관학교에 다녔던 오빠는 곧 12학년이 되는데 졸업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했다. 만에 하나라도 오빠가 발령을 받아 전쟁에 나가야하면 어찌나.... 하는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서웠다. 지금 이 간증문을 쓰면서도 걱정이 된다. 하여튼 그 때가 내가 영적,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져 밀바닥에 있는 시간이었다. 그 해 봄에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속이면서, 내 자신도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 마음속으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내 자신은 그대로였다.

지난 여름, YWAM 단기선교를 갔었다. 2주 반 동안 멕시코의 레이노사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텍사스에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은 후, 또 다른 일주일 동안은 멕시코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처음엔, 오빠들도 모두 참여하고, 또 친구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간 것이었다. 하지만 2주 반 동안 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게 되었다. 설교말씀과 교육받은 내용들은 굉장히 도전적

This past winter, you could say was one of the hardest parts of my life. I was letting all my stress get to me, and I was distracted like crazy. Let's just say some things happened at retreat which made me so much more distracted than I had already been. Although the retreat was truly an eye opener, I felt almost no change in me. This retreat was still simply somewhere to vent and cry at. I could even see my fellow brothers and sisters struggling to keep the fire alive in them. Just as after every retreat, a couple of raised hands started to disappear every week until it dwindled down to almost no one. As I saw this, I felt as if no one else was truly trying to keep the fire alive, so why should I?

As the year went on, my parents constantly were asking me if I wanted to get baptized. I felt like I would be a hypocrite if I did, so I always said no. I suppose my parents were always suspicious why, but I just told them I didn't want my testimony to be in the church magazine. Something that also hit me really hard during that year was thinking about my older brother Chris. He was going to be a senior at the Naval Academy soon and he had to choose what he was going to do once he graduated. The thought of him getting deployed and serving in the war, even if it was only a slight chance, scared me so much.


Even as I write this testimony, I still worry about it. Spiritually and emotionally, I was at my weakest and lowest point at that time. I think I was so good at tricking people into believing I was such a good Christian that I began to think it as well that spring. In my mind my spiritual life was growing, but in reality I was still the same.

This past summer I went to a missions trip called YWAM. Its two and a half weeks long with outreach to Renosa, Mexico. We were to train for about a week in Texas, then spend another week on outreach in Mexico. At first I went because both of my brothers went and also just to bond with friends. However, just in those two in a half weeks, I learned and grew so much spiritually and emotionally. The sermons and lessons they taught were so challenging and just relative to my life. This was something I could relate to and understand.

The worship was just carefree which was so different from was E.C . worship was like (not now of course). One of the sessions was called "The Broken Heart of God". This certain session was truly powerful because the man read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ain


이었고, 내 삶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내 삶에 관련지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찬양은 옛날 영어권 예배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같지 않고 너무 자유스러웠다. 수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느끼셨던 고통을 상세히 묘사한 것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 남자들까지 포함해서 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다.

단기선교 중 어느날 QT를 하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60:2)’ 이 말씀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덮여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용서해주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진로를 인도해주실 것이다. 

<번역: 양하영>

Jesus felt the day of his crucifixion. Almost everyone was crying in the room, including the guys.

As I was doing QTs one day during missions, I came upon this verse. Isaiah 60:2 “See, darkness covers the earth and thick darkness is over the peoples, but the Lord rises upon you and his glory appears over you.” That verse gave me such hope. Although many of us are covered with sin, the Lord will still come to us and share his glory with us. Just as he’s forgiven me from whatever I’ve done, big or small, God will forgive you too and take you on the journey of your life. 

오 아 시 스 미 니 스 트 리



약 6년간 오아시스반(장애아동반)에서 교사로 사역하던 Jean Chang 교사가 2008년 9월부터 티모시에서 교사로 섬기게 되는 남편 Philip Eng을 돕기위해 장애아동반을 떠난다.

현재 Ginger Li 교사를 중심으로 Janet Kim, Jisun Lee, Hank Lapa, Mark Kim께서 매 주일 아이들을 섬기고 예배 후에는 김신준(Alex Kim) 집사, 임도량 집사께서 수고하신다.

우리는 차세대를 이끌 크리스천

글 - David Yoon (12학년)

1991년 7월 2일, 데이비드 리로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다. 할아버지는 메릴랜드에 있는 대성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나는 어린 나이에 기독교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지금 내가 크리스천이 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환경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배웠지만, 어린 나이였던 나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할 수 없었다. 교회는 내 삶에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기 보다는 친구들과 놀며 장난치는 곳이었다. 할아버지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과 놀며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던 것이 나의 어린 시절이다.

하지만 나에게 어린 시절이 즐겁고 재미있지만은 않았다. 내가 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불같은 성격과 시댁 식구들의 어머니에 대한 학대로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게 되었다. 친아버지는 양육권을 포기하셨고 난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다. 결국 성장하는 동안 내 삶 속에서는 남자란 존재 없이 엄마와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된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자랐던 것이 날 슬프게 한다. 밖에서 공을 던지며 놀고, 또 어떻게 남자가 되는 것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3학년 때, 어머니는 지금의 아버지와 재혼을 하셨다. 아버지는 그 때 한국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나는 짐을 싸서 서울로 이사를 갔다. 한국에 한 번 가 본 적은 있지만, 그곳에서 사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새 아버지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나보다 다섯 살이 많은 아들과, 열 살이 많은 딸이었다. 그들의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당시 8살의 어린 나이였던 내가 보아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두 남매의 눈에서 볼 수 있었다. 한국에 도착해 몇 개월이



I grew up in a Christian family ever since the day I was born as David Lee on July 22, 1991. My grandfather was the pastor of a church in Maryland called Dae Sung Church and that was the church in which I spent my childhood days. As a result, I was exposed to Christianity at a very early age, a key reason why I am a Christian today. I learned all those bible stories and how Jesus loves me, but I could not really interpret and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Jesus Christ at such a young age. Church was a really big part of my life but it was more of a place to hang out and goof off with friends than a place to worship God. So that was my childhood, spending a lot of time at my grandparents' church and playing with the kids who went to my church.

However, my childhood wasn't all fun and games. When I was three years old my parents divorced due to my biological father's anger problems and his family's general mistreatment of my mother. My biological father relinquished his custody over me so I have stayed in my mother's care ever since. Also, I have not seen my biological father ever since the divorce. As a result, I grew up without a male presence in my life and I was raised by my mother and my grandmother. Thinking about it now, it saddens me how I had no father throughout my childhood. I wish I had someone to play catch with outside; I wish I had someone to teach me how to become a man.

In third grade, my mother got remarried to my current father. He lived in Korea, so we packed up our things and left for Seoul. I had been to Korea once

지나고 난 후, 난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형은 날 계속해서 괴롭혔고, 나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그 때 나의 마음 상태는 매우 연약했었고, 매일 밤 사탄이 내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들을 넣어 공격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난 하나님께 이러한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 달라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편안한 마음을 주셨다.

일 년 정도 서울에 살다가 부모님은 우리들의 교육을 위해 다시 미국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셨다. 형은 기숙사에 들어갔고 난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다녔다. 교회를 들락날락하며 다니고 있었던 8학년 때, 할머니께서 날 헬로쉽교회로 인도해 주셨다. 그 후부터 난 헬로쉽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다. 헬로쉽교회에서 친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영적인 가장 큰 발걸음을 내딛으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곳도 바로 이 교회에서다. 처음 참석한 티모티 수양회에서 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칠 것을 다짐하였다.

9학년 여름에는 헬로쉽교회를 통해 멕시코에서 있었던 YWAM 1단계 선교를 가게 되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경험이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온다. 멕시코로 떠났을 당시에 나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뜨거웠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만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모두들 각자가 맡은 선교봉사 활동이 있었는데 내가 맡은 것은 광대가 되는 것이었다. 거짓말 안하고 아마 가장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 하루에 두 번씩 화장을 하고, 지우고 하는 것이 정말 짜증스러웠고, 사탄은 이것을 통해 나날이 성숙해져 가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했다. 며칠이 지난 후, 우리 선교그룹의 리더가 멤버들 사이에 호트러짐이 보인다고 정신 차리라고 충고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기도와 찬양을 하며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분노에 대해 회개하며 앞으로 남은 선교활동에 내 생각과 행동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주님께 약속드렸다.

바로 다음 날, 우리는 플라자로 나가 그곳에 있는 어른들 앞에 서서 준비한 연극을 하며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끝난 후에는 모인 군중들에게 다가가 전

before, but living there was a very different experience. My new dad had two children; one son named Sae Won who was five years older than me and one daughter named Sae Yun who was ten years older than me. Their mother had passed away a few years before and even back then at eight years old, I could tell the sadness still lingering in their eyes. A few months after I arrived in Korea, I felt depressed as well. My brother would constantly harass me and I missed all my friends back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is time, I was in a very fragile state of mind and I could distinctly feel the devil trying to attack me by putting horrible thoughts into my head whenever I was alone at night. So I started to pray to God to protect me from the spiritual attacks and eventually God answered my prayers and gave me peace of mind.

After I had stayed in Seoul for a year, my parents decided to move back to the United States for our education. My brother was sent off to boarding school and I went to a day school near my house. I bounced in and out of churches until eighth grade when my grandmother took me to NCFC. Ever since then, I have been part of the NCFC family. NCFC was where I have met some of my closest friends, and it is also where I have made my biggest spiritual strides as a Christian. At my very first Timothy retreat, I made the decision to become a true Christian and give my life up to God.


It was also through NCFC I went to YWAM phase I missions in Mexico during the summer after 9th grade. Simply put, it was a life-changing experience. I learned about just how much God loved us in order for Him to send His one and only son to die for our salvation. It brought tears to my eyes just thinking of how much Jesus had to suffer because He wanted to save me, an unworthy sinner.

When we left for Mexico, I was on fire for Jesus and I decided to go all out in order to spread the amazing news of Jesus Christ to the Mexicans we would be reaching out to. Everyone had his or her own outreach job, and mine was being a clown. I'm not going to lie, it was one of the most annoying jobs ever. Putting on and removing the makeup twice a day was tremendously irritating and Satan used this as a hindrance in my ever-growing relationship with Jesus.

But a few days in, the leader of our missions group told us to get our act together because he sensed discord in our group. So we prayed and worshiped for hours, just getting back in touch with God. I repented for all the anger I had and promised that I would glorify Him for the rest of missions through my actions and

도를 시작했다. 친구 하나가 이미 어떤 여자분 하고 애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얘기하라는 감동을 주셨다. 나의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날 밤, 그 여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지금 까지 내 삶에서 그 때 복음을 전하고 느꼈던 넘쳐나는 기쁨과 즐거움에 비교될 만한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다. YWAM 1단계 선교는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을 바꾸어 놓았고, 내 자신도 변화시켜 놓았다.

그 다음해 여름에 제 2단계 선교로 시카고를 갔다. 그 곳 거리에서 같이 간 형제, 자매들과 찬양했던 것은 내 평생 선명하게 기억에 남을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 곁을 지나가며 쳐다보았지만, 우린 상관하지 않았다. 우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바꿔나갈 차세대 크리스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난 오늘 이렇게 7번 째 티모시 수양회를 다녀왔다. 이번 수양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 난 진심으로 티모시 그룹이 헬로쉽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나가고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도전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옛날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왔다. 우리는 자유롭게 뛰놀고, 춤추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내 삶에 셀 수 없는 많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또 세례까지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번역: 양하영>

thoughts. The very next day we went to a plaza and we performed our skits and various activities in front of adults. Afterwards, we went out to the crowd to evangelize. I felt that God wanted me to go talk to a particular woman who was already talking to a friend of mine. I shared my testimony with her, and praise God, she accepted Jesus Christ in her heart that night. No feeling in my life I've had since compares to that feeling of everlasting joy I had flowing jubilantly through my body after sharing the joy of the good news. YWAM missions phase I changed my entire perspective on God's love for me and it changed me as well.

I went to Phase II the summer after. The one thing I remember clearly and will always remember from Chicago is praising with my fellow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n the streets of Chicago. People walked by and stared, but we didn't care. We were going all out for God. It didn't matter what other people thought of us. We knew we were the next generation of Christians who would change the world by spreading the Gospel. We knew anything was possible.

And here I am today. I just got back from my seventh Timothy retreat, and this one was indescribable. I truly believe that Timothy is going to lead a new revival in NCFC and that we will change our church forever. The old has gone and the new has come. We are free to run, to dance, and to live for God. I thank God for the countless number of blessings he has poured onto my life, and by getting baptized on Sunday, I hope I can continue living for Him.

Praise God. 



AWANA는 디모데후서 2:15 말씀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대상: 만3세 ~ 초등학교 5학년
등록기간: 8/10 ~ 8/24

2008. 9/10. ~ 12/10 (13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8:30)

(MD 캠퍼스, 2008년 7월 27일)

제 62차 새가족반



(위줄 왼쪽부터) 김덕원 장로, 김덕규 장로, 이연진, 이승훈, 윤병무, 정옥선, 엄재영
(가운데줄 왼쪽부터) 노현옥, 이갑재, 이희, 이위례, 윤선희, 김영자, 이지연, 엄영희, 김민희, 장승민 목사
(아래줄 왼쪽부터) 민명순, 민학기, 한기선, 김원기 목사, 김혜정 사모, 이마리아 사모, 이인영 목사

가져와서 얻은 것

글 - 윤병무

2007년 10월 1일.

익숙했던 한국의 생활을 뒤로 하고, 낯선 땅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바로 전 날.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들. 우리는 함께 밤새도록 이민 집을 꾸렸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져가야 할 것은 무엇이고, 버리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잃은 것은 무엇이고, 저기서 새로 얻게 될 것은 무엇일까?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커다란 변화의 문 앞에 서서. 그 동안 살아 온 나날들을 회고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날들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미국에 온 지도 어느덧 10개월이 되어갑니다. 결코 짧지 않은, 그렇다고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도 마련했고, 아이들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Day Care Center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직업으로 가져 보기도 했고, 생전처음 가족과 함께 3천 마일이 넘는 자동차 여행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헬로쉽교회에 첫 발을 딛고, 이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확신반, 목적반, 새가족반 등의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믿음의 확신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그리고 주일예배와 오이코스 활동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의 감격과 성경공부를 통한 나눔의 기쁨을 지금처럼 가슴 깊이 느껴보기는 처음입니다. 이민을 오기 전 우연히 '생명의 말씀사'에 들렀다가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번역판도 있었지만 영어공부도 할 겸 원서로 구입한 책인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매일 한 챕터 이상씩 읽다보니 한 달도 안 되어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목적반에서 바로 이 책의 내용을 갖고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한편으론 놀랍고 한편으론 너무 감격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음을 느끼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이코스 모임을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셨고, 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한결같은 사랑과 희생으로 양들을 말씀과 은혜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오이코스 목자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를 본 받아서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오이코스 목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실천해 나가는 곳인가'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전에 이민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마음속의 질문 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버리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이고, 가져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잃은 것은 무엇이고, 저기서 새로 얻게 될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버려야 할 이전의 모습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It's not all about me! It's all about God!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들어서 한국의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미국의 메릴랜드로 옮겨 놓으신 것은 단지 살아가는 지역과 환경만을 바꾸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 제가 발 딛고 서 있는 미국, 메릴랜드, 그리고 헬로쉽교회가 바로 우리 가족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생활을 해 나갈 터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더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뻐하며

글 - 이희



유학 온 남편과 결혼해 10년 전에 미국으로 온 저는 잠시 한국 교회를 다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커버넌트 라이프(Covenant Life Church)’라는 미국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참 배울 것이 많고 십자가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는 교회였기에 기쁨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극적인 성격에다가 영어에 게을렀던 이유로 더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한 채로 본의 아니게 ‘일요일만 교인(Sunday Christian)’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들이 헬로쉽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가끔씩 방문을 해보며 참 뜨거운 교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구를 부러워하기도 하며 지내던 중 오이코스(이웃사랑)에 함께 참석해보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달랐지만 한국인이며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오이코스 식구들을 기쁨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오이코스를 방문하신 장승민 목사님을 처음으로 뵈었는데 섬에서 사역하셨던 얘기와, 하나님 사랑하시는 얘기를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를 새로운 오이코스로 옮겨주시었는데, 처음 보는 저희들이지만 따뜻하게 대해주시며 갑상선암으로 재수술을 받게 된 저를 위해 날마다 눈물을 뿌려 뜨겁게 기도해주시는 오이코스 목자이신 권혁준 집사님 내외분과 식구들로 인해 많이 감사했고, 헬로쉽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늘 관심을 갖고 기억하고 챙겨주시는 이인영 목사님으로 인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사이신 이 대훈 장로님 내외분은 바쁘신 와중에 일부러 심방해 주시면서 당신이 의사이긴 하나, 하나님께서는 의사의 손길 이상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

이라며 격려해주시고 뜨겁게 기도해 주셨던 일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임 때마다 오이코스 식구들과 함께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동안 기도가 살아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수술 전 참석했던 신년 부흥회에서 맘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이인영 목사님께서 예배 후에 김원기 목사님께 수술을 위해 특별히 기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바쁜 사역을 감당하시며 많은 성도를 챙기시는 목사님께서 오이코스만 참석하고 있는 저라는 사람이 갑상선 수술을 받을 거라는 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기도 했구요.

그 후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 이인영 목사님께서 심방해 주셔서, 교회는 내 신앙이 자랄 수 있고 내게 맞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 저희는 이렇게 헬로쉽교회의 새신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제의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저의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왔지만 훈련을 통해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변화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이곳의 제자훈련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신자만을 통해 교회의 목표와 추구하는 바를 배우는 중 이것만 보면 완벽한 모습일 것 같지만 부족한 모습도 많은 교회임을 겸손히 고백해 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는 교회로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신 장로님의 겸손한 모습이 저의 계속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김원기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솔직히 보여주고 성장해가는 것과 가정과 목회의 균형을 강조하시고, 교인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끊임없는 믿음의 진보를 할 것을 몸소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며 혼자서 와~하고 외치며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겠다’ 했습니다.

사실 미국 온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우연히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미국인 청년으로 부터 헬로쉽교회의 사랑을 들으며 참 좋은 교회인가 보다 했는데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 주일마다 찬양과 말씀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어서 기쁩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러지길 소망하며 제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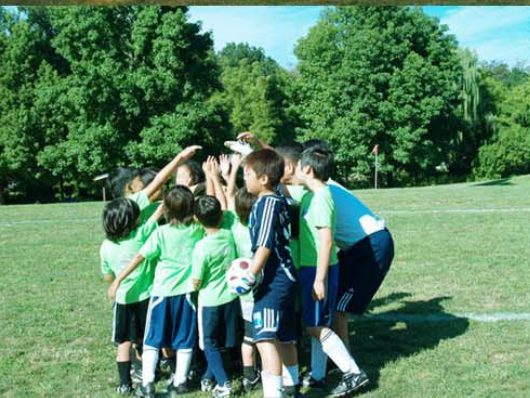
유년, 청소년 축구대회



글-이양호

메릴랜드 한인회(회장 허인옥)가 주최한 제 2회 유소년 및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본 교회 축구팀이 고등부 2등, 유년부 3등, 중등부 4등으로 입상하였다. 지난 8월 2일과 9일 양일간 콜럼비아 시다레인 축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3개 부문 15개팀이 참가해 열전을 벌였는데, 본 교회 유년부(10세 이하)팀은 참가에 의의를 두었으나 예상 외로 3위에 입상하였으며, 작년 준우승했던 고등부팀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빌립보교회와 우승을 다투었으나, 끝내 준우승으로 만족해야했다. 처음에는 축구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주축이었던 유년부는 맹진형, 맹승제 부자가 코치로 금년 5월부터 연습과 실전을 거치면서 차츰 축구팀의 면모를 갖추었고, 끝내 3위를 차지하여 학부모들이 열광하였다. 시험 당일에는 학부모와 선수 등 100여명이 모여 같이 식사를 나누고, 쉬는 시간에는 담소를 나누는 등 교회 피크닉을 방불하는 교제시간을 가졌다. 시험 때마다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행여 다칠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골이 들어갈 때마다 목청을 높이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이 시험할 때보다 아이들 시험의 응원이 더 뜨거움을 느끼며 약각은 서운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간다. 시상식이 끝나고 참가한 선수와 부모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세대를 넘어 스포츠를 통한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껴본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





오이코스 3년차를 시작하면서

글 - 김재흠 (MD 오이코스 목사)

학창 시절 이후 방학이 주는 나른함과 게으름을 다 잊고 지냈었는데, 오이코스를 섬기기 시작한 이후로, 다시 느긋한 8월의 여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오이코스 사역이 쉽지 만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미국에 산지도, 헬로쉽교회를 나온 지도 오래 되었지만, 한국에 직장이 되어서 가족을 두고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되어 지낸 것이, 5년여 세월이 흘러서야 다시 가족과 합류할 수 있었고, 그리던 우리 교회에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 말로는 금식수양회 때 온 교인이 손을 들고, 제가 다시 미국에 돌아 올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을 나가기 전 오이코스 지도자 훈련을 받았지만, 미처 헌신하지 못했고, 2006년 미국으로 오자마자, 정말 생각지도 않게 목자 임명을 받게 되었

습니다.

갑자기 우리 오이코스 리더 집사님에게 사정이 생기셔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떠맡게 되었고, 오히려 믿음이 성장할 계기가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아내도 내심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였습니다. 시작 당시 우리 가정과, 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집을 오픈하시기 힘든 싱글들로 구성 되어진 오이코스였습니다. 미국에 온지 오래되어서 자리가 잡히신 분들보다는 모두가 힘겹게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였습니다. 제 자신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리더가 부족하고 덕이 없어, 가족들이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나 처음 오이코스 사역을 시작하면 그렇겠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보다는 기존 멤버들을 새롭게 부흥시키고, 적극 참여시켜서 새롭게 결단시키

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은 인간적인 교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제에도 많이 힘썼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주말에 집으로 전화를 하는데, 오이코스가 늦게 끝나서 연락이 늦어지면 짜증을 내고, 왜 오이코스는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아내에게 불평을 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오이코스를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그전 생각은 다 잊고, 마냥 늘어지는 끝나는 시간을 두고 아내가 너무 늦게 끝난다고, 또 중간에 일일이 설명해주면서 사족도 많고, 주제에서 벗어난 대화를 끊지 못한다고 지적도 받곤 합니다. 최근에는 말이 너무 길어질 경우 멤버들이 호흡하는 순간을 치고 들어가 말을 끊어야 한다는 아주 고단위 기술도 선배 목사들로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해가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부흥회를 하는 듯한 감격적인 오이코스 모임을 가진 적도 많지만, 또한 참

으로 많은 시행착오들도 겪었고, 그로 인하여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처절히 깨달으며, 목사님이 언젠가 말씀하신 것처럼 독수리가 되지 못하니, 날개짓만 요란하게 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원들에게 줄 것이 거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 지는 가운데, 깊은 위로와 은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정성과 마음을 쏟은 목원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제자리걸음을 하는 듯한 가족을 바라보며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제 자신의 순수성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내가 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그 이전에 하나님을 내 뜻과 성품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 새로운 인간관





게를 즐기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겠다는 교만이 있지는 않았나? 오이코스 사역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저를 몰고 갔습니다. 잘 울지 않는 편인데도, 내 자신의 얕은 신앙에 눈물이 흘렀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가끔 어떤 조직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되기를 바라는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그냥 놔두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처럼 보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섬기는 기쁨도 못 누린 채 머뭇거릴 제게, 용기 있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제가 변화된 것이라면,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가겠다는 각오로, 2008년도 들어서서는 다른 사역들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힘든 사정을 누가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는 교구 목자모임에서, 선배 목자님들의 상황과 지난 여러 해 동안의 어려움을 건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래도 내 경험은 난이도가 낮은 것이었구나 라는 위안을 받음과 동시에, 선배 목자님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저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아시고 교회 목회실에서 여러 가정들을 새로 보내주셔서 작년 말에는 분가도 하게 되었습니다. 분가를 하며 책임과 부담을 공유하여 주는 방정훈 집

사 내외께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믿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여 오이코스에 참석케 해야 하는데, 주로 교회에 이미 계신 가정들로 양적인 성장만을 이룬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3년째 오이코스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된 모습으로 오이코스 멤버들을 진정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하는 행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자체를 모두 드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이

코스 멤버들에게도 평화로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성장을 위해 사랑의 아픈 소리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목자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나 교만을 없애고, 외적인 성장이나 모습보다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자 합니다.

오이코스를 섬기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느끼지 못했을 모든 기쁨과 은혜 때문에, 약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다시 새로운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목사님들께, 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장로님들과 동역하는 목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목자이지만 사랑으로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312 오이코스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든든한 동역자인 아내와 오이코스를 정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능력

글 - 최테레사 (VA 오이코스 목자)

1996년부터 헬로쉽교회에 출석했고, 지난 몇 년 간 오이코스 목자를 맡아왔습니다. 오늘은 목자를 하면서 힘들었던 케이스와 그리고 그로부터 스스로 배운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이코스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다고 한다면, 오이코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어야 할까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 힘껏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남편의 허락 하에 잠시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을 그만두었지만, 남편에 대한 원망이 가득차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하면서까지 수입을 원했던 남편을 증오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 가게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을 교회에서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항상 사람들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남편과는 거의 이혼상태까지 와 있었고, 신앙상 태는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욕을 막 하면서 세상을 저주하고는 했습니다. 오이코스는 잘 출석을 안 하면서 본인이 힘들 때마다 전화를 해서 1시간 이상 얘기를 하거나 때로는 일주일마다 몇 번씩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안스러운 마음에 시간이 가능한대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만나고 나면 고맙다고 힘이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기쁨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대답으로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자매의 생각과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게 되면서 저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희생하면서 자기에겐 시간을 쏟았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매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자매가 미워졌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 자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1년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 하거나 절대 불평하거나 하지 말 것.

둘째, 앞으로 1년 동안 남편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말고, 고마운 일만 생각할 것.

셋째, 교회 성경공부를 시작할 것과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올 것.

넷째, 그리고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할 것.

이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나와 만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서로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니 결정을 한 후에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자매는 말로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 전화도 없었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저와 했던 만남들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의 경우를 통해서 오이코스 목자의 역할 분량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이코스 목자가 오이코스 구성원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1.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생각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만능해결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오이코스 리더나 교구장 아니면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오이코스 목자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이코스 구성원이 알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이코스 목자의 시간을 구성원들이 함부로 낭비하는 기회를 줄여야겠습니다.

3. 특정 구성원과 너무 지나치게 친하게 지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도 관심을 필요로 하지만 문제가 없이 보이는 사람도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4. 또 오이코스 구성원과의 관계는 너무 멀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자주 만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지게 되면 문제도 많아지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5.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능력과 지혜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이 오이코스과 목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절실히 느낍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구성원들을 격려해서 함께 교회에 나와 기도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버지니아 새벽기도에 좋은 일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버지니아 양경옥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어린 자녀와 사모님이 함께 새벽기도에 매일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성전에 울리니까,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날마다 듭니다. 정말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한다는 것이 기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새벽기도에 나와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힘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8월 21일에 있었던 CCS (MD) Back to School Night 의 모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아프리카 위클리프 협회의 9월 소식

Wycliffe Associates Africa (September Update)

Denese Forkkio는 현재 위클리프 협회에서 아프리카 단기팀 코디네이터로서 사역하고 있다.

글 - Denese Forkkio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2008년 가을이 다가오면서, 진행 중인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코디네이트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중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카메룬(Cameroon)

위클리프 협회는 카메룬(Cameroon)에 ‘레인 포레스트(Rain Forest) 국제학교’의 새 캠퍼스를 짓고 있습니다. 이 새 캠퍼스에는 약 150명의 중고등 학생들이 다니게 됩니다. 새 캠퍼스는 위클리프 선교사 뿐 만 아니라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여러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성을 도울 수 있는 숙련된 봉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Greetings in the name of Christ!

As we move into the fall of 2008, there are many exciting projects underway. These are some of the ones I am coordinating in Africa. Your prayers and support are greatly appreciated.

Cameroon

In Cameroon, Wycliffe Associates is building a new campus for the Rain Forest International School. This new campus will accommodate approximately 15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t will help missionaries not just from Wycliffe, but from various missions throughout west central Africa. Please pray for skilled volunteers to help in the completion of this project.



카메룬의
‘레인 포레스트’
국제학교 건설 현장

채드(Chad)

채드에서는 번역가와 보조 스태프를 위한 원룸 주택 10채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는 봉사자들이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봉사자들이 이곳에서 섬기는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채드의 선교사들이 채드의 평화를 위해 기도를 요청합니다.

Chad

In Chad, we are constructing a 10-unit efficiency housing for translators and support staff. Please pray volunteers from the US and Canada would arrive safely and that they would have a safe, healthy, productive and rewarding experience as they serve. Please also pray the funds to finish the building would arrive by November. The missionaries in Chad also ask that you pray for peace in Chad.

채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번역가와 보조 스태프를
위한 주택 건축 현장



케냐(Kenya)

위클리프 협회는 케냐에 협력단체인 BTL(Bible Translation and Literacy)과 SIL Africa(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의 새 본부 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번역된 모든 성경은 이 본부 사무실에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올 팀에 더 많은 봉사자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봉사자들이 효과적인 사역과 삶이 변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DOOR(Deaf Opportunity OutReach)는 최근 국제 본부를 짓기 위해 케냐에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위클리프 협회는 DOOR의 본부를 짓는데 협력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지역 감독인 Eric Hagman이 12개의 빌딩을 짓는 이 큰 프로젝트의 계획을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Kenya

In Kenya, Wycliffe Associates is building a new office headquarters for Wycliffe's partner organizations, BTL (Bible Translation and Literacy) and SIL Africa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All Bible translation that is being done in Africa will be overseen from this office. Please pray for more volunteers for the upcoming teams and that the volunteers would have effective ministry and life changing experiences.

DOOR (Deaf Opportunity OutReach) just purchased land in Kenya to build their international headquarters. Wycliffe Associates will be assisting them in the building of their headquarters. Please pray Eric Hagman, Wycliffe Associates' Africa area director, will have wisdom as he helps with the planning of this large 12 building project.

수단 (Sudan)

18년간의 전쟁 후, 수단의 주바(Juba)에 있는 SIL 게스트하우스는 상당히 많은 수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클리프 협회에서는 수리를 도울 봉사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수단의 SIL 사역자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번역 작업이 향상될 것입니다. 수단의 선교사들이 수단의 평화와 또 케냐에서 준비하고 있는 물건들이 수단으로 잘 보내지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발송 과정이 아주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클리프 협회에서 아프리카 단기(봉사자)팀의 코디네이터로서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오는 모든 단기팀들을 관리, 조정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헬로쉽교회의 단기선교의 팀리더를 해보신 분이라면 각 사람들의 비자, 자금, 여행 보험, 예방접종 등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일들 뿐 만 아니라, 여러 팀 멤버들의 더 많은 사항들을 한 번에 관리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게다가 봉사자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각자가 갖고 있는 기술에 적합한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에 보내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현지의 봉사자들과 선교사들 사이의 연락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파트타임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큰 사역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지 선교사들과 단기 봉사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프리카로 이런 봉사자들을 보냄으로써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어떤 방해도 없이 제일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번역: 오진이>

Sudan

After 18 years of war, the SIL guesthouse in Juba, Sudan is in need of a great deal of repair. Wycliffe Associates is providing volunteers to make these repairs. The work we accomplish will bless SIL workers in Sudan and advance the translation effort. In addition to peace, the missionaries of Sudan ask for prayer for a shipment of materials that is being prepared in Kenya to send to Sudan. This can be a very difficult process.



수단의 게스트 하우스 수리 현장

My personal thanks to all of you for your concern for the work I am doing with Wycliffe Associates as the Africa short term team coordinator. I covet your prayers as I try to coordinate all the team trips to Africa. Those of you who have been team leaders for any of NCFC's mission trips know it can be a very difficult task to make sure every person has their visas, funds, travel insurance, vaccinations, etc. I have to coordinate those kinds of things and more for the mem-

bers of multiple teams at once. In addition, I am responsible for screening volunteers and matching their skill sets to projects that interest them. I am also the liaison between the volunteers and the missionaries on the field. It is a very big job to do on a part-time basis. Please pray God will open the door for me to do this on a full-time basis so that both the missionaries on the field and the short term volunteers will get the help they need. Getting these teams of volunteers to Africa frees Bible translators to do their vital work without interruption. 🇳🇬

Much love,

Denese Forkkio
denese_forkkio@wycliffe.org
Africa Short Term Team Coordinator



(편집자 주: 한글 번역은 예배시간에 발표한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줄잡아 말해도, 인생은.... 힘들다.

여름 수양회에서 돌아온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직하게 그 곳에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말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간단히 이것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현실 세계”라는 생활 감각에 불잡혀 있기 때문이다.

수양회의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는 각자의 신앙 간증을 나누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알고 있다. 나는 꽤 비뚤어진 삶을 사는 아이였다. 폭력적인 아버지, 끊임없이 걱정하고, 슬퍼하고, 화를 내는 어머니, 나를 잘못된 길로 끌어 내리는 형을 가진 나는 처음부터 내리막길 인생이었다. 매 주일 어머니는 나를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 애쓰셨지만, 나는 거부했다. 나는 교회에서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나쁜 아이’가 되어 지냈다. 나는 내 삶이 싫었고, 가족을 미워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미워했다.

5학년 때, 수양회를 갔었다. 필립 안은 리더 중의 한 명이었다. 나는 그것에 진짜 충격을 받았다. 그 당시 나는 필립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처음부터 나

길지 않은 나의 시간 가운데

글 - Kevin Lee (10학년)

In all admittance, life is.. hard, to say the very least. We've returned from Summer Retreat, and I can honestly say at this moment, I feel blessed, I feel his love. Christ above, he loves us. In all honesty, these past few weeks were like none other. I have a declaration, or a challenge you could say for all of us. I say us because myself is included in this. Some people might see it as simple, other harder because we're still latched to this "Real World" sense of living. The challenge is this, stay strong... You can take it in any anger, lust, greed, whatever else I struggle with. School begins soon, and the very first moment I enter that school, life will be changed and I will spend every moment praising God. If I lose friends, who cares, if people think I'm crazy, all the better for me. I will be unashamed for Jesus, and nothing will tear me apart from him.

During small groups at the retreat we shared testimonies of our faith. Most of you know mine.

I grew up as a child with a pretty screwed up life you could say. Right from the get go my life went downhill with an abusive dad, and constantly worried, sad, pissed off mom, and a brother who you could say led me down the wrong road. Age two came and my mom and dad separated, and to this day the only memory I have of that moment is my parents in court. Legal separation, though they still live together. And I think back now and I realize, I hated Christ as a child. Every Sunday my mom would try to bring me to church, but I'd refuse. I spent the time in church being the "bad child" that everyone's parents wanted their kids to stay away from. I hated life, I hated family, and I hated everything about this world. From early childhood to 6th grade my life continued in that way. But I went to a retreat actually as a 5th grader, and Philip Ahn was one of the leaders you could say. And it just really blew me away. I didn't know from such a young age, completely unashamed of him. And it amazed me...

From that moment I felt as if life wasn't all that I thought it was. It wasn't all that I thought it was. It wasn't just fighting constantly or trying to be the "cool kid." But still I can say I didn't change, at all. I started enjoying going church, but I only went so I could get out of my house and away from my dad.

7th grade came and Philip stepped up into leadership. As an 8th grader, he stepped up into leadership and even the high schoolers looked up to him as a strong figure. He started something that we called NCFC's version of "24/7"

는 그가 내가 어울리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필립은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것이 나를 놀라게 했다.

7학년이 되었고, 필립은 리더십의 위치에 올라섰다. 고등학생들까지도 그를 강한 인물로 올려다보았다. 필립은 YWAM의 “24/7”를 본 따서, 헬로쉽교회 버전인 “24/7”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 모임은 한마디로 굉장했다. 여러 수양회와 다른 모임들을 다녔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이곳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 모임 중에 필립은 내가 언젠가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내가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강력한 간증으로 내 삶의 경험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다.

그날 밤, 나는 거의 끊임없이 내내 울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 기분은 상당히 고조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내가 있을 장소가 진짜로 있다’라고 느꼈다. “24/7” 기도 모임에서 보낸 밤들이 나를 구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나는 언제나 그 모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이 그렇듯, 기도 모임이 취소되자마자, 나는 내 삶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해, 나는 하나님에게서 놀랄 만큼 많이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겨울 수양회가 다가왔다. P. Carlos가 그 해의 강사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하며 수양회를 떠났으나, 내가 수양회 동안 느꼈던 고통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지는 않았다. 수양회에서 돌아온 뒤,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며 시간을 보냈다. 내 인생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던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며... 그러나 내 자신은 바꾸지 않았다.

prayer. (Based off of the YWAM version) And surprisingly, he actually asked if I wanted to help to set it up even though at the time I really didn't see myself as a spiritual person. But I agreed to help anyways, and actually ended up doing like... nothing. Laziness got the best of me. But Philip made a contract for anyone who wanted to do it that they had to go to five prayer sessions before they made a decision of staying, or leaving.

The sessions were simply put.. Amazing. In all honesty, although I'd been to retreats and stuff before them, this is what truly brought me to a place where I actually learned about God. During one of the sessions Philip spoke to me. He told me that he felt that one day I would be someone to be looked up to; that although I was in pain, I could use my experiences in life as a powerful testimony to bring others to faith. That night I cried nearly constantly for the whole time. Around a few weeks or months back, I had actually met Ellina, and during one of the sessions she spoke to me about something confidential (not sure if she minds anymore, but I won't say anything anyways. It's just not my place to tell) but it lifted me up so greatly because I felt that I wasn't alone. I felt like I actually had a place in this world even though to the people I knew, I seemed insignificant. The nights of "24/7" prayer saved me, and since then I've always been grateful for it.

But like it is for most Christians... Immediately after the prayer sessions were canceled, I fell to the rock bottom of my life. (They were canceled because too much people came to joke around and not pray)

As most of you know, my brother and I have had crazy anger issues. Life in all honesty, sucked in my middle school years, even with "24/7" prayer and retreats and such. Because of our anger issues, my dad constantly being drunk and not helping with the family, plus our family always being in a pretty bad financial situation, we were evicted three or four times in the span of about two years. All it did was push me even lower in my life and I hated it, I hated everything once again. Every day and every night was living hell for me, and it reflected in school and church. Every day of school was arguments with people, getting in fights and cursing out whoever pissed me off even the tiniest bit. Church was arguments with my brother every time, and slipping back into the reserved shelled mode of my life that I had in my younger years.

Freshman year came, and life really hadn't changed all

제자훈련 안내

가을학기 평신도 제자훈련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개강: 9월 21일(일) 오후 12:30

수요 성경 대학

개강: 9월 10일(수) 오후 7:30

플로리다 레이크랜드 집회에 갈 때까지 ‘나는 내 자신이 절대 바뀔 수 없다’라고 느끼며,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없다’라고 느끼며, 그렇게 내 삶에 낙담하며 계속 살아갔다. 플로리다 부흥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찬 예배에도 불구하고, 그 부흥회는 나를 진짜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부흥회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기도가 가짜였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자 하는 내 의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플로리다에 갔던 그 즈음에, 헬로쉽교회의 주일 예배에서는 엄청난 찬양과 기도의 폭발적인 시간들이 있었다.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강한 결심을 했다. 내 고통들이 모두 씻겨져 나간 것처럼 느껴졌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최고의 대화 방법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참석한 여름 수양회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지시가 없는데도 기도를 했다. 수양회는 처음 예배에서부터 내가 기대했던 그대로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기쁘다. 찬양 시간에 나는 서서 기도를 시작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늘어 놓으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개별적으로 기도하었는데, 그 사람들을 만지자마자, 내 가슴은 무너졌다. 각각의 사람들이 무서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이 나를 두렵게 했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고, 그들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이들이 나만큼이나 고통을 겪어왔으나, 나는 내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했었고, 그들의

that much. I had a slip up in enrollment and got sent to Northwest, where I wasn't supposed to go. I guess you could say I sort of enjoyed it, but while I was there my cursing grew, my arguments grew, and constantly I getting pissed off at.. basically everyone. The semester passed and I moved, once again because of eviction. (anger issues and money problems) Right from the start of the second semester, I was supposed to go to Quince Orchard and was supposed to be transferred right after semester finals. But a slip up with my mom's English actually made me be a "drop out" for about a month, and I came to Quince Orchard missing about two units in each class. right from the start I fell behind in class and slid back into friends from my childhood, who were completely secular. Only about one in every ten/fifteen of my friends were saved, and I hardly even talked to those that much.

During the course of this past year, Winter Retreat came (2007) and I had fallen from God an amazing amount. P. Carlos was the speaker that year and I was surprised to know that my brother had fallen away as well. Everyone knows about him being sent to hell, and how he experienced the pain. I left that retreat actually amazed at God's grace, but I hadn't changed my own view because of pain I felt during the retreat. Things had happened any my mind was confused, my thoughts jumbled. I spent the days following the retreat sorting through my life, just having thoughts about what's happened in my life, and what am I doing right now. But I didn't change myself.

I followed through life till I went to Florida really... depressed over my life, about how I felt I could never change and that I had no purpose in this world. Even through the Florida Revival, even though the prayer was powerful, and the worship was strong, it hadn't really changed me. And I realized, it wasn't because the revival didn't have power, it was because my own prayers were fake, my will falling to the temptation of Satan.

Around the time I was in Florida, NCFC's worship and Sunday service just blew up into an amazing period of praise and prayer. Pastor Jamie called up anyone who wanted to pray, to come before the stage and pray while the worship team played. I went up with a firm resolve to change my life, and to live for him. Immediately as I began to pray, thoughts of my pst burst into my mind, and it felt like my pain was being washed away. I fell to my knees, paralyzed my God's unending mercy and I cried to him. I cried and wept and sang with everything I had, and I realized that day, prayer truly is the key. Prayer is the greatest form of communication with God, is it not?

I tried to live as much as I could for him since then, and I went to Summer Retreat with amazing expectations. On the ride there,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without any prompting, I prayed. I lifted up the retreat center and asked God to bless the people there, soften our hearts, and allow us to cry out to him with every ounce of our strength, to cry out to him until our legs died out under us, until our arms burned with our praise. And I'm glad to say, from the very first service, it was just as I expected. Just to keep this un-




말을 듣지도 못했었다. 나의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그 날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었으면 하는 것이다.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고, 당신의 가족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라. 당신을 돌봐주시고, 내려다보시는 아빠가 저 위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신다. 영원히.

우리 모두는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다. 우리 모두는 친구들에게서, 가족들에게서, 다른 이들에게서 상처를 입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일어설 것이다. 미끄러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누군가를 불러라.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여기에 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기쁘게 내가 변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 시때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래된 것들을 없애시고, 새로운 것들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당신 모두를 축복하신다. 주님 안에서 강하게 서라. 그 분 안에서 당신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번역: 오진이>

der a readable amount of text, I'll focus on the last night. (Most of you know, during the day of the last night, I ripped open the skin on my knees and hands. arm doing something really stupid, and I sat in my cabin just feeling completely confused. I sat there wondering, if just taking a step is making blood drip down my leg, how am I going to worship during jam session? It really wasn't even that bad, just hurt like crazy and David Na has a picture of the cut after it got cleaned and covered with like a tube of neosporine.) But regardless, during the last night after I had got fixed up by the nice Skycroft people, I stood and began to pray during the worship. I stood there and just.. asked what do I do now? And I truly felt God speaking to me, and he listed specific people I needed to pray for. (Couldn't find Minsoo, but then I realized Josh Birk took him outside with his class to give them a prayer session). And as I prayed for them each one by one, individually, my heart broke almost immediately after I touched them. It felt as if every single one of them was going through such a frightening pain, and it scared me. And I realized, I'm not alone, they're not alone. We know what each other are going through, and to my brothers and sisters, I love you. So many of you have gone through just as much as me, and I've been so centered on my own pain I haven't acknowledged your pain and listened to you. I had a single wish for each and every one of my brothers and sisters, that that day would be a life changing experience. Not the same roller coaster ride, and it's just cliché to say it, but that we would be utterly changed. But I feel it's possible. Just know we're here for you, your family cares. Remember, Daddy's always up there, caring for you and looking down on you. He loves you, he loves you, he loves you, he loves you, he loves you, he loves you. Infinitely.

We've all been through bad times, we've all been hurt by friends, family, and others.. but we will not fall. We'll stand together anyways. If you feel yourself slipping, just call somebody, but I have a feeling that won't be a problem. We're all here, and your family cares. Your brothers, your sisters, whoever. We love you and were here for you.

Revelation 21:4 "He will wipe every tear from their eyes. There will be no more death or mourning or crying or pain, for the old order of things has passed away."

God is with us, he will always be. He has wiped away the old and replaced it with the new. God bless you all, stay strong in the Lord and you will never fail in him. He loves you. 



2008 헬로쉽 교회 가을 부흥회

영적 침체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부흥

MD Campus:	9월 18일(목) 5:00AM
	9월 19일(금) 5:00AM
	9월 20일(토) 6:00AM
VA Campus:	9월 18일(목) 7:30PM
	9월 19일(금) 7:30PM
	9월 20일(토) 6:30PM



스데반 사역이란 훈련받은 평신도들에 의해 제공되는 사역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기독교적 돌봄으로 섬기는 사역이다.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비밀 보장 안에서 1:1로 영적,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사역이다.

스데반 사역 제 1기 수양회
(8월 9일, 안나산 기도원)

우리의 손과, 발과 가슴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글-김정분

1994년 갑급함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헬로칩교회로 인도하여 주셨다. 매 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나의 영과 혼을 쪼개시며 잠자는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어나게 하셨다. 이민 생활 초창기라서 어렵고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지만 말씀에 은혜를 받다 보니 모든 어려움이 기쁘게만 받아 들여졌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가장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은혜 속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다보니, 직분도 받게 되었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기에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부서를 찾아다니며 봉사하기 시작하였고, 힘들어 하는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나름대로 애를 썼던 것 같다. 그런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또 믿음 생활하는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다. 언제부터인지 관계들이 깨어져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또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싶고, 함께 있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기도하게 되고, 늘 머릿속

에서 그분들이 지워지지 않는 나를 보았을 때, 아~~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그런데 막상 그 분들을 만나 그들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마음이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 정말로 그분들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없었고,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며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나름대로 고민하며 조사도 해 보았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스데반 사역’에 대해서 소개받고 교육받기 시작하였다. 스데반 사역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동안 멋모르고 정말 짧은 지식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대책 없었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스데반 사역’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돌보는 것인지 조금씩 정리가 되고 좀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 사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손과 발이 없지 않으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손과 발과 가슴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노력과 헌신이 따라야 하지만 정말로 바라기는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가지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내가 되어 그 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서로 필요하고 사랑하게 만드신 하나님

글-정이실


가끔씩 주위에서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들, 조금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사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안타깝고, 도와 주고, 위로해 주고만 싶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면 누군가 자신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이 많았다. 어떤 때는 2~3시간씩의 전화 통화도 다반사였다.

그런데 내가 느낀 문제점에서는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라이프스타일이 양식(pattern)화 된 경향도 보였다.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일들을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내가 힘들어 조금 선을 그으면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오히려 상처받는 경험도 했었다. 주위에 상처받고 힘들어 하면서도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도 잘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잘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상담을 제대로 배워 볼까 하는 마음에 로욜라(Loyola)대학을 알아보기도 했었다. 남편이 석사 학위를 받고 난 후, 나도 다시 공부해 볼까 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스테반 사역이’ 교회에서 시작되어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사람들과 겪은 일들로 배우고 갈등한 부분들에 있어서 더 정리되고 깨달은 부분이 많이 있었다. 특별히 나는 들어 주거나 온유한 부분은 괜찮은데 어느 지점에서 선을 그어야 하는 것과 단호하게 의사 표현하기를 어려워했었다. ‘스테반 사역’을 훈련받으며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더 나에게 도움이 되었고 지난 나의 실수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 같다. 사랑은 마냥 온유만한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실을 말해 주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원래 남에게 싫은 소리하는 것을 못하는 성격이라 (남편 빼고) 어려웠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있는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남을 돕는다, 섬긴다는 것이 내 것을 주어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자주 깨닫는다. 주님은 이 땅에 나와 같이 연약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야 할지 몰라 마음으로 울었던 사람을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며 지금도 그 분의 손은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지나간 삶속에 얼마나 많

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과 인내가 있었나를 생각하면 나의 눈길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기도해주며,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의 모든 초점은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힘든 사람도, 큰 어려움도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을 나는 안다.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던지, 바꾸어 주시던지, 힘을 주어 극복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인내로 통과하게 하시던지.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필요하고 사랑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 옆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글-지용한

‘스테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는 왜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좀 의아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역하다 돌 맞아 죽을 정도로 열심히 하라는 말인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보다는 그 내용들이 무척 진지하고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론과 실제’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번 ‘스테반’ 사역훈련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평신도 훈련센터를 섬기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르치려고만 하는 버릇이 생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번 ‘스테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따지고 분석하려는 태도에서, 좀 더 마음으로 느끼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스테반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갈 것을 결심해 봅니다.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예수님처럼 인자하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그러나 때에 맞춰

예수님처럼 단호하고,

예수님처럼 과감하고,

예수님처럼 슬기롭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프라임 타임과 건물관리부의 활동 모습



빛 가운데 드러나라: 타타르스탄

현재 타타르스탄 공화국내에는 2005년 카잔 역사 1000년 기념을 기점으로 이슬람 사원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타타르인의 기독교인은 거의 전무합니다. 타타르인들은 러시아 정교회를 받아들일 테니 자신들의 이슬람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며, 이슬람과 정교회가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협약을 맺고 그것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글 - 유종우



(왼쪽) 러시아 내 타타르스탄
(위) 타타르스탄의 수도 카잔

입니다. 타타르라는 민족의 이름은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아랍어와 중국어의 근거를 따라 ‘타인’, ‘다른 민족’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볼가우랄 지역에 위치한 타타르스탄과 바쉬

코르스탄에 300만의 타타르인들이 살고 있고, 나머지 인구는 러시아(모스크바 100만), 중앙아시아 (카작 30만, 우즈벡 60만), 시베리아, 중국, 오스트랄리아, 일본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된 민족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 러시아는 본래 동유럽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 러시아가 땅의 끝으로 대륙을 정복할 야망을 펼쳐가는 그 길목에 타타르 민족이 있고, 지금부터 450년 전에 유라시아 대륙에는 정교 러시아에 의한 십자군 전쟁의 살육이 타타르 민족을 대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타타르를 정복한 러시아는 얼어붙은 볼가 강에 구멍을 내어 타타르 사람을 집어넣고, 침례를 받으면 살려주고 이슬람을 지키면 그대로 차디찬 얼음물 속으로 밀어 넣어 죽이는 강제개종을 실시했고 모스크바에는 이슬람 타타르를 정복한 기념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교 성당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 후 타타르는 독립하지 못하고 타타르스탄 공화국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타타르인들은 기독교에 마음을 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은 그들에게 저주의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라시아 이슬람 삼각지대의 맨 꼭대기에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세계 교회에 꼭꼭 숨겨져 있는 780만의 무슬림 타타르 민족이 있습니다. 타타르민족은 러시아연방 내의 최대의 소수민족으로 독특한 이슬람을 유지하며 문화와 역사를 발전시켜온 투르크계 민족



모스크바에 있는 카잔 성당



카잔의 시내 전경

한국에서 모스크바까지 비행기로, 다시 동쪽으로 기차를 타고 밤을 새고 나면, 타타르스탄의 수도 카잔에 도착합니다. 몇 년 전에는 수도 카잔의 역사 1000년 기념으로 러시아 정복 당시 파괴되었던 쿨 샤리프 사원이 재건되었고 이슬람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원에서는 이슬람 경전뿐만 아니라 영어도 교육해 주기 때문에, 이곳의 자녀 입학할 학부모들이 무척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타르의 개혁주의 이슬람, 자디디즘의 영향입니다. 19세기 러시아는 형성된 대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간 길목에 있는 타타르가 반기를 들면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즈 지역을 다 잃기 때문에 타타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러시아 정교회 교육을 시킵니다. 그 때 타타르인들은 반발하여 지적, 문화, 경제적인 면을 러시아와 동등화시키고 이슬람을 기반 하에 가치관을 확립하며 이슬람 교리를 바꿉니다. 전통적인 사원에서 경전 교육뿐 아니라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며 지식을 강화하기 위해 계몽 운동을 일으켜 사원에서 수학, 지리학, 물리학 교육으로 문맹을 없애고 정체성과 지식을 가르칩니다. 수 십 세기 동안 러시아가 핍박과 교육으로 타타르인을 바꾸려 했지만, 타타르인은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수준 높은 교육으로 민

족의 정체성을 찾아왔고, 개혁주의 이슬람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외지의 타타르인들이 방학이나 휴가를 얻으면 타타르스탄을 방문하여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배우고 있고, 타타르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남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타타르 공동체를 찾아 민족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한 채 기독교에 대한 오해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러시아 정교회, 미국 종교로 생각하며 이슬람을 지향하지만, 또 근본주의도 아닌 민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폭동을 일으킬까봐 근본주의 이슬람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타르스탄 공화국내에는 2005년 카잔 역사 1000년 기념을 기점으로 이슬람 사원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타타르인의 기독교인은 거의 전무합니다. 타타르인들은 러시아 정교회를 받아들일 테니 자신들의 이슬람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며, 이슬람과 정교회가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협약을 맺고 그것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인 너희들은 정교회, 우리 타타르는 무슬림으로서 선을 지키며 외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려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장하며

복음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민족. 이슬람 신앙을 포기하면 민족 자체가 러시아 민족으로 흡수되어 버릴 것이라고 염려하는 러시아 최대 소수민족 타타르. 제국주의 러시아의 정교 기독교외에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혜의 복음을 전해줄 자가 없었던 타타르 민족.

우랄 산맥을 넘어 유럽으로 들어간 수많은 아시아계 유목민족들이 이슬람을 믿으며 민족을 형성해온 이 타타르 민족을 향해 이제는 주의 신실한 천국 백성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타타르는 지금 겨우 땅을 일구는 시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타타르스탄, 바쉬코르토스탄, 우드무르티아, 마리엘, 추바쉬, 모르도비아 등 자치 공화국과 여러 소수민족들이 있는 러시아 소수민족창의 타타르스탄에는 소수의 사역자들이 있으며, 백 투 예루살렘 비전 성취를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타타르스탄의 수도 카잔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카잔의 기차역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에게 새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동역과 중보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1. 타타르 민족이 역사상 가지게 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증거 되도록, 그래서 타타르가 이제는 빛 가운데 드러나서 생명을 얻고 북방 이슬람권이 열리어 '백 투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주시요.

2. 타타르 민족에게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백 투 예루살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타타르 민족을 품고 헌신하는 분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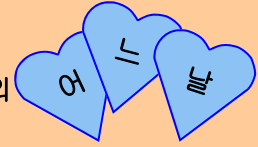


쿨 샤리프 사원

교회행사

- ◆ 9월 7일(일) MD 가정사역부 재정위기 관리 세미나
- ◆ 9월 10일(수) AWANA, 성경대학 개강 (MD)
- ◆ 9월 11일(목) 목요 여성사역 개강 (MD)
- ◆ 9월 14일(일) 18주년 창립기념 예배 (MD)
- ◆ 9월 14일(일) - 17일(수) 남성 TD
- ◆ 9월 18일(목) - 20일(토) 가을 새벽(MD), 저녁(VA) 부흥회
- ◆ 9월 21일(일) 18주년 창립기념 예배 (VA)
- ◆ 9월 27일(토) 이웃 전도를 위한 마당 잔치

헬로쉽의



잉꼬부부인 줄 알았던 장대창 집사 (토끼)부부에게 나타난 동상이몽의 현실
(제 62차 새가족반에서)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일까요?

1. 축농증 치료
2. 코 고는 것을 막아줌
3. 오뎅한 코로 만들어줌
4. 진정한 남자를 위한 코걸이

*발행인: 김원기

*편집위원: 오장석, 이연일, 오진이, 지용한, 이창환, 안선희, 양하영

*인쇄: KOREA Monitor

Washington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Non Profit Org
U.S. Postage
Paid
Suburban Md
Permit No 3035

MD Campus: 18901 Waring Station Rd., Germantown, MD. 20874 Tel (301) 444-3100 Fax (301) 444-3115

VA Campus: 1439 Shepard Dr. Sterling, VA. 20164 Tel (703) 444.5634 Fax (703) 444.0567

<http://www.fellowshipusa.com> (제출하신 글이 편집 방향에 따라 수정되거나 게재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